

1주차 독후감 :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북클럽 팀명	에브리타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4월 13일~4월 27일 (수요일) / 장 소 : 일송도서관 4층 디지털 스터디룸과 비대면 자율강좌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4월 13일은 중간고사 기간 전 주라 도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에 대해 비대면 자율강좌로 토론했다. 4월 20일은 중간고사 당일이라 시험 있는 학우들을 위해 휴강하고 27일은 디지털 스터디룸에서 만나 심화토론을 나눴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 “인간은 이타적이나 생존을 위해 이기심은 필요하다.”</p> <p>사물은 빛을 받으면 더 밝아지는 부분과 그림자가 져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를 '양극화'라고 하는 데 양극화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것이다. 나는 도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양극화의 예시가 되는 중심 개념을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이다. 길을 건다 아이가 넘어지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나서서 달려가 일으켜 주고 싶을 것이다. 반면 반 아이들을 모아 선착순 1명에게 치킨 쿠폰을 주겠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1등을 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p> <p>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타적이야!”라고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만약 내게 “너는 어떤 것 같아?”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이야’라고 답할 것이다.</p> <p>이기적인 것은 과연 나쁜 것일까? <이기적 유전자>의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에 근거하면 이기심과 이타적이라는 두 단어의 정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를 바탕으로 한 행동에서 근거한다. 만약 강추위가 찾아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내 품에는 빵 한 개가 있지만 누군가를 나눠주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p>							

다. 한 명에게 양보를 한다면 또 다시 경쟁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나 혼자 빵을 먹게 되면 이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의 분쟁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의도라면 과연 이기적일까?

필자는 이기적 행동의 정의를 먹이나 영역, 교미의 상대와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누기 거부하는 행위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챙길 줄 알아야 남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악한 사람인가? 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또 다른 예시로 사람과 집단이라는 상호 보완적 관계와 벌 무리를 들고 싶다. 벌은 침을 쏘는 행위로 자신을 지키지만 침에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장이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 벌의 자살 행위가 집단에게 주는 이로움일지 몰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벌은 이로움에서 주는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더 나아가 희생에 대한 적절한 표상조차 없다.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이타주의는 과연 옳은가?’에 대해 묻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은 이타적 동물이나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필요하다’라고 답하고 싶다.

양**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우선 나는 이 책을 읽기 전 이기성과 이타성의 관계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며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인간의 유전자는 자연선택에 의해 이기성을 갖게 되며 이타적인 행동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기성에 가깝다고 말한다. 나는 인간의 이기성과 이타성은 그 행위의 동기에 따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면 이타적인 것이고 각 개체, 개인만을 위한 이익이라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책에 나온 예시를 봤을 때도 이타적 행위와 이기적 행위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의 관점에서는 동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모두 이기적 행위에 가까웠다. 오히려 이타성이 이기성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유전자에 의해 이기성을 갖는다.

조** “이기적 인간·이타적 인간”

과거 중국 전국시대에 사상가 양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했다. “나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한 올의 머리카락을 뽑아 천하가 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 하였다.

반면 목자의 겸애설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상반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나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타적인 경우가 있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사회에서 독단적으로 한 가지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는 이타적인 삶보단 개인을 우선시하는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왔던 것 같다. 아무래도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현대 사회가 이타적인 분위기보단 개인을 우선시 하는 사회가 되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을 통해 두 권의 책을 읽고 팀원들과 토론하며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현재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삶을 조금 더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오** “이기주의 속에 피어나는 이타성”

인간은 이기주의를 기초로 하고, 학습에 의해 추가적으로 이타성을 배우는 존재라 생각이 들었다.

이타적인 생각이나 행위가 낳는 후천적인 결과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명예나 긍정적 영향은 이타성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가치가 이기주의에 대한 본능을 넘어설 때다. 이때는 인간에게 이타성이 드러나는 것 같다.

더 나아가 인간이 학습하는 이타성은 이기주의가 둔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고찰해 볼 만하다고 여겼다. 인간은 동기가 이타적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의식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을 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화의 입장에서 행복은 곧 생존의 기회라는 내용이 이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이기적일 것이라 예상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동의한다.

다만 '진화는 미래를 못 본다'는 내용에 대해 적어도 인간은 이기심이 불러오는 영향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날 전멸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멸에 대해 걱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기심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타성과 이기주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은 만약 인간에게 이기주의적 성격만이 존재한다면 타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신뢰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뢰를 위한 이타성의 존재는 지지하지만 이기심의 만연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더불어 이타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득과 실에 대한 판단을 아예 멈추게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명백한 이타적 행동은 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기적 유전자>로 따지면 결과를 배제하고서라도 동기를 지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이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대해 고민해봤을 때 '집단의 이익' 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집단의 이익은 곧 개인에 대한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 나의 행동은 이기적이다. 그러나 이타적 동기가 존재했음은 부정할 수는 없기에 나는 이기주의의 만연 속에 이타성이 작게나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 이기주의는 근본적으로 혹은 결과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살펴본다면 이타적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2년 04월 27일

참가자대표 : 김 **

2주차: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은 평생의 딜레마다'

북클럽 팀명	에브리타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4일(수요일) / 장 소 : 캠퍼스라이프센터(CLC) 4층 스터디룸 5번과 비대면 자율강좌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4월 27일날 활동 하면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은 평생의 딜레마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를 읽고 팀원들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스마트리드에 게시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 ‘모든 생명은 이기적인 개체이다.’</p> <p>5장에서는 이기적 기계에 대해 언급한다. 이는 자신의 전체 유전자에 적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무분별하게 실행하도록 만들어진 개체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의 유전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모든 개체는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기에 이기적 기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p> <p>그 중 환경은 생존을 위한 제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시로 인터넷의 큰 이슈였던 모기를 들겠다. 모기는 인간들이 기피 하는 해충 1위지만 거미와 잠자리에게는 먹이다. 만약 모기가 종말 된다면 포식자와 소비자 사이에 균형이 일그러질 것이다.</p> <p>반면 같은 종끼리 경쟁이 있다.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종에 속해 짝짓기 상대가 될 수 있는 개체 또는 잠재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품어 줄 어미가 될 개체를 바탕으로 경쟁이 생긴다.</p> <p>예시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는 행위 역시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같은 종의 구성원은 생활 수단 역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생존을 위한 모든 자원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된다.</p> <p>인간의 경우 역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 제목이 왜 이기적 유전자일까?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는 장소인 몸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돕고 행한다. 더 나아가 유전자는 남의 몸속에 있는 자기 복제자까지 도울 수 있는데 이를 '이타</p>							

주의'라고 한다.

필자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생각과 행동은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사례로 연예인의 기부 시사를 접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해도 악플러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은 누구나 선한 존재다'라는 문장을 인용해보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해 봤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은 평생의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봉사 활동 등 아직까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기심과 이타심이라는 두 양극의 간격 줄이기를 목표로 할 것이다.

양 '이타심 안에 이기심이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한다. 하지만 인간의 본래 유전자 자체는 이타성보다 이기심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도 그 속을 자세히 보면 이기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연예인의 기부 행위를 들 수 있다. 한 연예인이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의도는 분명 선하고 이타적일 것이다. 하지만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여론에 비취지는 선한 이미지를 얻게 된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나쁘게 말하면 기부 행위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자가 보기에 기부자의 의도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단 1%라도 기부를 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단, 기부라는 행동이 이타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지만 이 순간 속에서도 인간의 이기심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심과 이기심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딜레마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 딜레마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단적으로 한가지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있어서 자신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도 함께 생각하면 더 나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이기적인 인간은 무조건적인 악인가?’

우리는 이기적이란 단어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기적 인간과 이타적 인간 둘 중 어떤 인간이 되고 싶냐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이타적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기적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사회를 지배해 왔다.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을 강조하는 문화가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

나 역시 이기주의라고 하면 거부감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적으로 이기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이기주의에 대한 찬양이 아닌 종족 번식을 위한 이기적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종족 번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기적이라도 그 행위를 유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지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과 근연도가 가까울수록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보면 과학이 주는 정보에 대한 경외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할까?

유전적으로 본다면 이기적인 행위는 종족 번식을 위한 당연한 행위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기적 행위로 이익을 본 개체와 피해를 입은 개체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본 개체는 이를 당연하게 여겨야 할까?’ 인간 사회는 동물들과 달리 훨씬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지성이 발달하여 모든 개체들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유전적인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사회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본능적인 감각을 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기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의 제제가 없다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적절한 이기적인 행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기적인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동기부여를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선을 지키는 이기주의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

으로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딜레마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딜레마 중 극단으로 몰고 간다면 결국은 자신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본능적인 이기주의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타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 ‘혼재된 이기심과 이타심을 정리해야 한다’

목적은 이기적이었으나 결과는 이타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목적은 이타적이었으나 결과는 이기적일 수 있다.

인간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에 대한 주제를 고민하는 데에 있어 이분법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 중 하나인 경우는 인간들의 무수한 행위들 중 경험적으로 극히 일부일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행위 속 의도와 그 결과에 담긴 이기심과 이타성의 정도를 각각 고민하는 것이 정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접근이라고 느꼈다.

<이기적 유전자> 중 이번에 읽은 5, 6장에서는 '공격'의 입장에서 이기심과 이타성을 고민했다. 나는 공격이 모두 이기적 목적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타성 또한 결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는 등의 이기적 의도를 띄며, 이것이 남의 이익과 남의 피해를 가지는 결과를 부른다.

다만 인간은 결과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즉 딜레마라는 문제에 빠진다. 고로 판단을 돕는 기준이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차선책을 낳기 위한 최선이라 생각된다.

토론에서 말한 예시들 중 나는 세월호의 선장에 대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았다. 선장은 이기적인 선택과 이타적 선택을 모두 했으나,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직업 윤리적 관점에서 선택의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많은 수의 희생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과 체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토론에서 나온 것은 법과 사회적 합의로 좁혀졌다. 다만 법은 사회적 합의에 비해 고정적이고, 변화에 대한 적용의 속도가 느리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며, 판단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딜레마들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며 자신의 답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각자의 생각에 따른 행위에 있어 우리는 경험과 가치에 따라 이

	타성과 이기심이 적절히 조합된 유동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	--------------------------------------

2022년 05월 04일

참가자대표 : 김 **

3주차: “이기심은 유전자 보존을 위한 생존 수단이다”

2022년 04월 14일

북클럽 팀명	에브리타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4일~5월 11일(수요일) / 장 소 : 캠퍼스라이프센터(CLC) 스터디룸 5번 비대면 자율강좌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p>5월 4일에는 이기적 유전자 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일등한다>를 읽었다. 본문에서는 딜레마에 대해 다루고 있어 이기적·이타적 두 요소를 바탕으로 “이기심은 유전자 보존을 위한 생존 수단이다.”는 큰 틀을 바탕으로 토론해 11일까지 스마트리드에 개별 업로드했다.</p> <p>김** ‘인간의 이기심은 한 가지로 판단될 수 없다’</p> <p>현대 사회에서 '착하게 살면 호구다' 나 '손해 본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요즘 들어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적으로 쓰인다.</p> <p>그러나 본래 사전적 정의는 형용사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뜻으로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를 얹보나, 만만하나 등 자기방어를 먼저 하게 된다.</p> <p>어디를 가서 피해 보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결국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었기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나온 수치라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생물학자 하딘은 '사회 생물학' 또는 '이기적 유전자학'을 요약하기 위해 사용했다.</p> <p>다윈주의에서 유전자는 자기와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희생해 그들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시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시 이 문장은 어머니의 모성애와 헌신이 느껴지는 글이라 많은 이들의 심금을 자극했다.</p> <p>그러나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으로 관점을 잡으면 유전자 보존을 위한 이기적 행위라 간주한다. 마음씨 좋은 놈의 수는 감소할 운명에 처해 있지만 결국은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에서도 '딜레마'를 언급한다. 나와 당신이 을이고 물주를 갑으로 비유했을 때 을들은 협력과 배신이라는 두 장의 카드를 낼 수 있다.</p>						

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협력이라는 카드를 냈지만 상대는 배신을 낼 수 있다. 결국 서로의 신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내 의지로 비롯되었으므로 누굴 탓할 수도 없다.

물론 속상하고 화난 마음은 들지만 생존의 관점에서 '상대가 과연 이기적일까?'에 대해 더 고찰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양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에 지배되면서도 이타성을 가져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책을 읽기 전, 이 전략은 단순히 잔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전략이 단순히 잔인한 방법이 아닌 승리하는 전략 중 하나임을 깨달았다.

도킨스에 따르면 승리하는 전략의 두 가지 특징은 '마음씨 좋음'과 '관대'다. 딜레마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먼저 베풀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단, 끝이나 횡수가 정해져 있거나 참가자들이 이를 인지할 경우에는 이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 같은 인생 속에서 배신 전략을 이용해야 할까.

불확실성의 연속인 삶 속에서 호혜적 이타주의로 접근해야 할까. 나는 후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과거 우리 전통인 '품앗이'에서도 나타난다. 품앗이는 도움을 받는 만큼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계획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단순히 이전에 마련되어 있던 것이다.

그만큼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에 지배되면서도 마음씨 좋은 놈이 일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호혜적 이타주의 덕분이다. 인간은 혼자 살지 않는다. 사람들과 함께 협력, 경쟁하며 산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도 이타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혜적 이타주의를 베푼다면 더 나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조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손이 바로 가는 책은 아니었다. 내가 과학에 문외한이기도 하고 과학책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언젠간 읽어야 한다는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을 통해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볼 기회가 생겼다.

이기적 유전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해가 쉬운 책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평소에 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생소할 수 있는 용어와 실험내용이 책을 이루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아마 혼자 읽었다면 완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이 책을 선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썼는지 알 거 같다. 책을 읽다 보면 충격적인 표현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은 생존 기계일 뿐이라는 표현이었다. 이 단어가 이 책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동안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서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 이런 모든 행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 이 책의 중심내용이다. 심지어 모성애조차 프로그래밍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찌 보면 너무나 이성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근연도라는 개념이 있다.

근연도란 한 세대가 점차 멀어질수록 외적인 부분이 다른 것이다. 어떤 식으로 예시를 들까 하다가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게 됐다. 같은 팀 조원인 수림님은 김해 김씨로 가야 김수로왕의 후손이다. 김수로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당시의 그림으로 대략 알 수 있지만 수림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닮은 점이 없어 보인다. 즉,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과학에 대해 다시 한번 경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졌기에 이기적으로 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다소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책의 내용에 오해할 수는 있다.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종족 번식의 확률을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당연하게도 이기적으로 생존해야만 유리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협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에게 도

움을 주면서 살아간다. 혼자만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타심과 이기심의 딜레마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현대 사회는 개인을 중요시하기에 아마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타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남과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오** ‘반복이 불러오는 파장’

12장에서는 주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딜레마는 너무나 단순한 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무언가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생각에는 파훼법이 있다. 파훼법은 합의하거나 안심시키거나 협약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의와 협약은 약간의 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꼈고,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행을 반복하는 것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행위나 판단을 단속할 수 있다. 또, 반복으로 인해서 상대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반복이 다수의 전략적 선택을 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인간의 시선에서 분명한 최선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략들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 정도이다.

책에서 말하는 경험적인 승리 전략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덜 교묘해 보이는 것이었다. 덧붙여 제시한 마음씨 좋음과 관대는 가장 단순하면서, 분명하다. 먼저 배신을 하지 않으니 고려할 사항들이 줄어들고, 배신당한 일들을 잊음으로써 고민이 줄어든다.

초반에 전략이 출현하면 전략의 비율이 변화되어 선택이 펼쳐지는 환경이 변화된다. 이는 선택의 반복과 그 결과로 인한 불신 형성과 단속과 조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후반에는 비율의 변화가 없어져서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안정 상태에 이른다. 우위의 전략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보통은 먼저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이 그대로 우위에 머문다고 하므로 처음의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못된 전략 한두 개는 초반에 빈도가 상승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이다. 못된 전략이라는 표현에서 이것이 이기적인 전략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고로 못된 전략은 피하는 것이 우위

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략끼리의 경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인 대립인 영합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영합 대립으로 보이는 것에 약간의 선의를 보태면 쌍방에 이익을 주는 비영합 게임으로 바꿀 수 있다. 비영합 게임은 위험이 크다. 어떤 경우는 비영합 게임이 생존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시로 이순신 장군의 “죽고자 하면 살 것,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기적인 결과를 위해 선의라는 이타성을 이용한다. 중요한 것은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기적 행동 및 판단에 이타성을 살짝 활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 같다.

인간의 반복적인 시행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형성하고, 이는 곧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지속해서 변수가 발생하며, 이것이 판단의 다양성 증가로 이어진다.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지지만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처음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귀납적으로 내놓고 이기적인 전략은 불리했고, 오히려 단순한 전략이 유리하다. 추가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더 적은 이익이지만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조금의 이타적 판단을 추가할 수 있다.

이기심은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본성인 이기심에 더해져 차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 이타적 성격을 경험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이타적 성향을 조절하여 최선의 선택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삶이 아닐까 싶다.

2022년 05월 11일

참가자대표 : 김 **

4주차: 이기심과 이타심은 중립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북클럽 팀명	에브리타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8일~5월 18일(수요일) / 장 소 : 캠퍼스라이프센터(CLC) 스터디룸 5번 비대면 자율강좌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5월 11일에는 이기심과 반대되는 개념인 ‘이타심’에 대해 다뤘다. 인간에게 있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편향적 입장보다 중립을 중시하려 했다. 원래는 <이타주의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도서를 읽으려 했지만 판매가 종료돼 담당이신 송영주 선생님께 허가받은 뒤 <냉정한 이타주의자>와 <이타주의자-사피엔스에서 인공 지능까지> 라는 두 도서를 선정했다. 이타주의자와 냉정함은 역설적인 요소라 생각해 팀원들의 흥미를 돋웠고, 이기심과 이타심을 중립적으로 공존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 북클럽의 목표이기에 주제에 가장 부합하다 느껴 다시 선정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 ‘이타심에 있어 냉정함은 필수적 요소다’</p> <p>“착하게 살아라 하늘이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있어 ‘착함’은 필수 요소가 됐다. 더불어 나와 남을 돕는 ‘이타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은 착하다는 말이 욕보다 더 나쁘게 들린다고 한다. ‘내가 만만한가?’ ‘이용하기 쉬운가?’ 등 어떤 어조든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사람 사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p> <p>이에 대한 해답은 도서 <냉정한 이타주의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1장에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실천하는 이기적 면모를 언급한다. 실제로도 나 한 명의 노력은 스스로조차 폄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p> <p>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어떤 문제든 물 한 방울의 크기이지 양동이의 크기가 아니다. 그러니 대가 없이 순수하게 이타심을 행했다면 이는 내 노력의 부족이 꼭 잘못이 아니라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변화 가능성을 잃</p>							

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남을 돕는 방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달려나간 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이타주의적 행동이지만 결과는 늘 좋지 않았던 경우의 수가 존재했다. 나 역시 실제로 지인의 카드를 찾아주다가 황당했던 경험이 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내가 습득했으니 연락 달라고 부탁했었다. 하지만 상대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사이야?”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었던 경험이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속담에서 ‘물에 빠진 놈 건졌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그냥 생긴 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저자는 남을 도울 때 신중히 택하면 더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주장했다.

이 책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제목만을 보고 냉정하다? 라는 점에서 정내미 없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나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이 있듯 어느 정도의 냉정함은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양 ‘이타주의는 공감과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람은 이타심과 이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나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거슬릴 것이다. 보통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인간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는 누구나 선뜻 도와줄 것이다.

만약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면 이타적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상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서 어느 사회든 서로가 서로에 어떤 식으로든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개인은 살아가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사회를 움직이는 개인 간의 협력 속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타주의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책에서는 효율적 이타주의를 주장하며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데서 벗어나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야 한다. 본인과 가족을 쓰는 돈과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힘든 상황에 있는 타인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

로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한다.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정치인이 가장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이타주의임을 느꼈다. 보통 정치인은 선거 때가 되면 국민에게 연신 고개를 굽히며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힘쓰겠다며 한 표를 부탁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대부분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지키기에 바쁠 뿐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힘들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서 보이는 이미지가 그렇다. 여전히 정치인들에게는 이타주의보다 이기심이 팽배해 보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타심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 ‘DNA에 각인된 이타주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 다음 책으로 선택된 <이타주의자-사피엔스에서 인공지능까지>라는 책은 확연히 이기적 유전자와의 입장은 다르다. 이타주의자 책 1장은 ‘우리가 왜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

그동안 내가 생각한 이타주의도 단순히 마음에서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에선 여러 가지 실험과 이유를 바탕으로 이타주의를 자세히 설명한다.

나는 그동안 이타주의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리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예시가 매우 잘 들어져 있는데 그중 빨간약과 파란약에 대한 예시가 인상 깊었다.

‘타인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것과 타인을 위해 사는 삶 중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당연히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에 대한 해답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나선 무조건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삶이 정답은 아니라고 느꼈다. 이 책도 유전적인 측면으로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설명한다.

<이기적 유전자>도 결론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주장하지만 <이타주의자-사피엔스에서 인공지능까지>라는 책은 이타주의가 살

아남은 이유를 설명하며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딜레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이 책에서 나왔듯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했지만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나의 이타적인 행위가 무시 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더더욱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책의 3장의 주장처럼 최소한의 효율적인 이타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선을 지킨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인간이라는 개체가 이성을 가진 뒤부터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습했고 DNA에 각인했다.

이제는 이타주의 역시 남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선을 주는 것도 이타주의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타주의에 대한 개념은 과거에 머물렀기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거부감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잘 숨어 있던 이타주의의 등장’

<이타주의자-사피엔스에서 인공지능까지>의 <1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타심이 기저에 존재함을 밝힌다. 평소 생각할 때, 경제적 면에서 경쟁을 통한 맹목적 이익 취득이 당연한 전략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의외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타적 관계를 맺고, 이타적 판단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단지 이기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력 거래에 대한 예시에서 기존 생각을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

서로가 이기적이라면 서로 더 적은 소모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 대한 손실이 증가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이타적이라면 서로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고로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증가한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에서는 서로가 대체적 관계가 되고, 이타적 판단을 하는 시장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이라면 이기심의 예시로 들었을 시장에서 이타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흥미로웠고, 오직 이익을 위한 환경에서

적절한 이타적 성격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3장>에서는 이성적 이타주의와 추가로 이와는 반대 격인 감성적 이타주의를 다룬다.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 두 이타주의가 적절히 분배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공감을 통해 동정심을 느끼는 감성적 과정은 이해하기 힘든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타적 판단을 하도록 돕는다. 이와 반대로 잘못되었거나 충동적인 감정에 같이 휩쓸리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 조언이 빛을 발하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감정에 판단이 흐려진 것이 아닌지에 따라 이성적 이타주의와 감성적 이타주의를 섞어 판단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022년 05월 18일

참가자대표 : 김**

5주차: '이타적 삶을 왜 지향하는가?'

북클럽 팀명	에브리타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8일~5월 25일(수요일) / 장 소 : 캠퍼스라이프센터(CLC) 스터디룸 5번과 비대면 자율강좌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5월 18일에는 이타심에 대해 토의했다. 이타심이 왜 중요한지,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했다. 우리 조원들을 포함해 누구나 한 번쯤 선한 의도가 변질돼 크게 상처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타적으로 살면 손해 보기도 하며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왜 그럴까?' 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도서를 통해 각자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 '이타심에도 크기가 다르다.'</p> <p>사람들은 이타심을 갖고 있지만 차이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수확체감의 법칙' 이 있기 때문이다.</p> <p>수확체감의 법칙이란 특정 분야가 이미 많은 관심과 자금을 모은 상태라면 그 분야에 추가 자원을 보탬 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방치된 분야라면 효율적으로 남을 도울 가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p> <p>나는 이 법칙에 대한 개념이 흥미로워서 도서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추가적으로 읽었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인간이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더 크게 고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 뇌에 있는 감정 중추에 비롯돼 남을 도울 때 감정에 휘둘리면서 기존 문제보다 새로운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p> <p>질병, 가난 등 일상적인 긴급 상황에는 감정이 무뎠어져 있지만 7.1의 지진이나 쓰나미 등 극적인 상황에서는 한층 강력하고 즉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의 이타심은 재해의 규모와 심각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호소력의 크기와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공연성에 따라 크기가 다른 것을 알</p>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보편적인 예시로 투표와 소액기부가 있다. 이들은 모두 '기대 가치'에 근거한다.

물론 한 명의 시도로 극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한 선행과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잠재적 보상이 큰 선행을 비교 시 유용하다고 본다.

양** '또 다른 본능, 인정욕구'

이타심과 이기심. 무엇이 본능인지, 우선인지를 가리기 전에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만큼 책에서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장 본능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인정욕구에 주목하고 있다.

이타심과 이기심을 고려하기에 앞서 인정욕구라는 본능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토론에서 나는 연예인의 기부 행위를 설명하며 이타성 뒤에 이기심이 숨어있다고 생각했다.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적 이미지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부를 한 연예인의 선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의에 대한 의심과 비난한다면 '이 사회에서 이타주의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어쩌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순수한 선의를 강조하는 문화가 오히려 이타적인 행동을 찾아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인정욕구를 받아들이며 이타주의자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이타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 책이 유전자 측면으로 이기심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이타주의자' 책은 뇌와 관련된 여러 실험을 거론하며 뇌과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은 '이타심'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이기심, 이타심 모두 우리의 본성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타인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혜적 이타주의, 합리적 이타주의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이타주의의 미래'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지능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나 역시 인간의 지능은 발달했고 그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에는 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차이도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다.

침팬지의 경우 다른 침팬지의 고통이나 이익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자세한 실험 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침팬지 사회는 이타주의적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인간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인간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며 이타주의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아마 동물의 입장에서 인간은 비효율적인 종족으로 바라볼 것이다.

책에서 설명하듯 초사회성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도 인간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런 초사회성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역설적으로 이런 초사회성이 지금의 인간사회를 만들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서 발전시켰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이타주의는 반드시 필요했다. 타인과 함께 성장해야만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이타주의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았다.

문화를 발전하면서 이타주의는 고립주의로 변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타인을 위한 이타주의가 타인을 배척하기도 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미 현대 사회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른 존재인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종족의 우월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발전해 온 인간 사회의 성장이 동물사회보단 발전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타주의가 있었다. 서로 협동하고 함께 발전을 하면서 살아왔기에 지금의 인간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정욕구가 만들어낸 지금과 같은 사회는 향후 몇 백년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점차 인간의 유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정욕구로서 타인을 돕는 사회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 ‘결코 간단하지 않은 사회적 판단’

4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며 인간의 이타성에 대해 말을 이어나갔다. 눈에 띄는 점은 인간이 혈연이 아닌 상대 혹은 집단에 대해서도 이타적인 행위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를 협동성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런 이타성의 차이는 초사회성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이타적 성격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이기적인 선호 외에도 공평함에 대한 선호와 사회성에 대한 선호를 띤다. 그 어떤 사회도 이기적 인간이 대다수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다수가 공평한 분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얼마나 타인들과의 협동에 의존하는지와 생활이 얼마나 시장에 의존하는지를 고려하는데, 이는 개별적 특성이 아닌 사회의 일부 특성들이다. 집단 간의 행동 차이와 협동성 차이를 볼 때 문화 또한 인간의 이타적 성격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집단 선택론에 따르면 집단 간에 이타성을 장려하는 문화적 규범이 다르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선택과 같이 남아 확산되어 이타주의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타주의자들은 결국 살아남았고, 그들은 사회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행동하였으며, 이 종합적인 판단들이 생존을 이끌어 내었다.

인간은 집단의 다수가 따르는 규범을 순응하는 경향이 있기에 살아남은 문화적 규범의 균일성이 유지되게 되며,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제지하거나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타적 규범의 사회에서 이기주의자들 또한 남들의 시선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는 처벌 받는 사람의 손해를 증가시키고, 처벌하는 사람의 비용은 감소시키는 등 이익을 낳는 경향이 있다.

다만 집단 내의 이타성이 극단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집단 외의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이나 혐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명확히 대상을 구분하여 누구에게는 이타적인 사람, 누구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5장에서는 인정 욕구에 대해 설명한다. 수많은 경험을 통한 접

근과 회피 간의 균형적 전략의 반복이 자동화된, 직관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가치라 불린다는 것이다.

가치는 판단에 있어 상대적 비교를 통한 결론을 내는 데 필수적이다. 인간은 특히 회피 경향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동기가 이타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에게는 필수적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나타난 이타적이고 도덕적 행동을 결과론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동기의 비판이 큰 효과를 가질 순 없다.

반대로 여기서 더 나아가 이기적일지도 모르는 동기를 형성했을 인정 욕구에 대해 인식하고 점검하는 것이 이타적인 사고와 행동을 다듬고, 조절하고,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난 한마디로 답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저 본능적인 이기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솔한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사회적인 동물, 인간인 이상 많은 것을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생긴 가치로 최선의 판단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은 아마 이타적 성격을 부분적으로라도 띠 것이라 믿는다.

2022년 05월 25일

참가자대표 : 김 **

6주차: ‘이기심 · 이타심을 바탕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북클럽 팀명	에브리타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25일~6월 1일(수요일) / 장 소 : 캠퍼스라이프센터(CLC) 스터디룸 5번 비대면 자율강좌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양**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오**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6월 1일에는 마지막으로 ‘최종보고서’ 작성을 하게 됐다.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 이기심 · 이타심에 대해 더 깊은 사고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팀원들 모두 도서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토론을 마치게 됐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 ‘순수한 이타적 의도와 변질된 결과는 연관성이 없다’</p> <p>이타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봉사적 차원의 천사와 같은 행동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타주의는 단순히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다.</p> <p>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예절교육과 도덕 수업, 윤리 과목을 통해 이타적으로 살라고 교육받는다. 이타적으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 갈 거라 말한다.</p> <p>하지만 나를 희생해서 순수히 건넨 호의가 되려 변질되고 예상치 못하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 사람을 봐 가면서 호의를 건네</p>							

라고 조언하지만 솔직히 이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타성과 이기성에 관련해서 성선설과 성악설 개념을 함께 다뤄 보고 싶다. 먼저 사상가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다”라며 성선설을 주장한다. 만약 당신은 어린아이가 차도에 뛰어 들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모두가 깜짝 놀라며 말리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마음은 어린아이의 부모님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닐 것이라 감히 추측해본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같을 수 없고, 예외는 존재한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건네는 이타심이 도구적으로 쓰일 수 있다. 예시로 유튜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봉사활동을 하러 가거나 기부를 했을 때 의도와 상관없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큰 예시일 것 같다.

예시에서 언급한 개념은 <이타주의자 사피엔스- 인공지능까지> 도서에서 ‘극단적인 이기적 행위’라고 다룬다. 이는 성선설의 반대말인 성악설과 유사하다. 성악설이란 고대 중국의 유학자인 순자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며 선한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디까지가 이기적 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이타적 행위인지 분명히 경계를 긋기는 힘들다.

본문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개념이 양극의 위치에 있듯 이기적·이타적 역시 같은 유형이라 생각했다.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을 통해 책을 접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까?’ 등의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이타심으로 건넨 의도가 되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원치 않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가는 일은 상상만 해도 싫다.

그럼에도 ‘이타적으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순수한 이타심에서 비롯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꼭 당사자의 잘못은 아닐 테니까 인간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어간다.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생물에게도 ‘공생관계’가 존재하듯 경쟁 관계보다 남을 배려해야 하고 공생관계가 더욱 발전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이타주의는 내가 속한 집단에게는 관대하

고 이타적이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타 집단에게는 되려 방어작용이 형성돼 해를 입힐 수 있다.

우리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이타주의를 벗어나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목자의 사회변혁가적 이타행위 지향해야 한다. 사회변혁가적 이타행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고찰을 필요로 한다. 핸드폰을 열어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살아가야 하지만 댓글들은 딱딱하고 되려 서로를 혐오하기에 이르는 악플이 많다. 각자의 다름과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서로를 혐오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한낱 미생물의 종합체에 불과하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삭막해진 세상 속에 우리는 서로 공생하며 사는 미생물들 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타주의는 이러한 공생관계의 토대가 되고 넓은 관습이 아닌 경제적 발전과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양** ‘재난 속 빛나는 이타주의’

이타심과 이기심 관련된 책들을 읽고 나서 제일 크게 깨달았던 것은 이타심, 이기심 모두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존재한다.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타심과 이기심이 본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인간의 이타심과 이기심의 경계는 모호하며 인간은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행동의 동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기적 행동이 될 수도 이타적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기적 행동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느냐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 재난 상황을 이겨내느냐. 어느 것이 생존 확률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재난을 겪었던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대개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 왔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나선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초장기 때 동선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 이기적인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 나가자 의료 자원봉사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

프랑스의 한 미래학자는 이타주의가 코로나 퇴치의 길이라고 주

장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잘 쓰면 사회 전체의 감염이 줄고 경제가 살아나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한 국가만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사태를 피할 수 없기에 더욱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익일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이 또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자세로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슬기롭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

조** ‘급변하는 사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인간이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개체에 대해 이기적으로 생존을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간들만의 이타주의로 인해 다른 개체로부터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발전해온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다.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주의자 - 사피엔스에서 인공지능까지 라는 두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운 것 같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무엇이 좋고 싫고가 아닌 책을 통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실험과 이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책이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이타주의자에 대한 시각이 회의적이었다. 요즘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꾸준한 봉사와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 스스로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타성은 타고난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말 심성이 착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더욱 편견이 깊어졌던 것 같다. 물론 책을 읽고 나서 의견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이런 타고난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타고난 사람들을 기점으로 주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고난 심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어떠한 이타주의적 교육이나 환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이타주의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기주의자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이기주의자라는 언어가 주는 부정적인 요소와 그간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 있던 이기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편견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더 큰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이기주의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기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기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껏 이기주의는 부정 이타주의는 긍정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왔다. 삼국지를 예를 들어보자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중시하였던 유비와 백성들보다 실익을 중요시 여겼던 조조 중 사람들은 과거에는 유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유비보다 조조의 이기주의적인 면모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였으며 조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다. 삼국지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사회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인식도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막연한 이타주의가 아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실익을 챙겨나갈 이기주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숭고한 의식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배려와 이타주의가 타인에게도 부담 없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려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배려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다 보면 이상적인 이타주의의 모습이 되어있으리라 생각한다. 나 역시 두 책을 읽은 뒤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인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씩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 ‘결코 간단하지 않은 사회적 판단’

<이기적 유전자>에서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생물의 근원적 이기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타적인 동기의 행동이더라도 그 속에는 이기심이 내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

본능적으로 득과 실을 따지더라도 결국 실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동기를 띄기에 이타적인 행동이다. 고로 이타적인 동기가 존재했음을 부정할 순 없다. 이에 따라, 나는 인간의 이기주의의 만연 속에는 이타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목적은 이기적이었으나 결과는 이타적일 수 있고, 반대로 목적은 이타적이었으나 결과는 이기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따른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토론에서 말한 예시들 중 세월호의 선장은 이기적 선택과 이타적 선택을 모두 했음에도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직업 윤리적 관점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선택의 순서가 밀려났고, 이것이 많은 수의 희생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어떤 선택으로 인한 결과뿐만 아니라 선택의 우선순위 또한 최선의 판단을 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결과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고로,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판단을 돕는 기준이나 체계가 필요하다. 토의에서는 법과 사회적 합의로 좁혀졌다. 사회적 합의는 법에 비해 유동적이고, 변화에 대한 적용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며, 판단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딜레마들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며 자신의 답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각자의 생각에 따른 행위에 있어 우리는 경험과 가치에 따라 이타성과 이기심이 적절히 조합된 유동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기적 행동 및 판단에 이타성을 살짝 더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다. 다만 경험을 통해 이타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한 이타성을 판단에 적절히 적용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생존에 필수적인 우리는 이 능력을 함양할 필요성이 있고, 그로써 인간이 단지 이기적이라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이타주의자-사피엔스에서 인공지능까지>에서는 이타성을 살펴본다. 경제의 시점에서 볼 때, 이타성은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증가시키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와 반대로, 이기주의적인 관계에서는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 더 적은 소모를 하려 하므로 모두에 대한 손실이 증가한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에서는 서로가 대체적 관계에 그치고, 이타적 판단을 하는 시장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타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타적 성격에는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있어 우리는 어떤 성격의 이타성이 필요한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감정에 판단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에 따라 이성적 이타주의와 감성적 이타주의를 적절히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혈연이 아닌 상대 혹은 집단에 대해서도 이타적 행위를 보인다. 다만, 인간은 명확히 대상을 구분하여 누구에게는 이타적인 사람, 누구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수많은 경험을 통한 접근과 회피 간의 균형적 전략을 반복하는 것이 자동화된, 직관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가치라 불린다. 가치는 판단에 있어 상대적 비교를 통한 결론을 내는 데 필수적이다. 인간은 특히 회피 경향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동기가 이타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인간에게는 필수적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가 있다. 이 인정욕구가 자연스럽게 확장된 이타적이고 도덕적 행동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동기의 비판이 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기적일지도 모르는 동기를 형성했을 인정욕구에 대해 인식하고 점검하는 것이 이타적인 사고와 행동을 다듬고, 조절하고,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난 한마디로 답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저 본능적인 이기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솔한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차별적으로 사회적인 인간이고, 많은 것을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생긴 가치로 최선의 판단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은 이타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띄게 될 것이다.

[팀원들의 소감 한 마디]

김:** 수업과 과제, 알바 등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지만 정해진 틀에 갇힌 느낌이 들었다. 문득 20대를 더 넓은 견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고 떠오른 생각과 동시에 심비우스 북클럽 공지를 봤다. 감사하게도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 어렵게만 느껴져 도전조차

안 해봤던 도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점에서 재미를 느끼게 됐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이 가진 고유한 세계관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은 타인의 세계관을 배우는 기회도 필요하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또 다시 심비우스 북클럽을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다.

양:** 평소에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독서를 하려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혼자이기도 했고 책이 어려울 때는 금방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비우스를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책 선정부터 독서 후 토론까지 함께 하면서 책의 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팀원들도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에 나 또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조:** 나는 책을 읽을때 혼자 읽고 혼자 생각을 하는 편이었다. 그러던 중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을 통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좋은 기회가 생겼다. 만약 혼자 이 두 책을 읽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확률이 컸을 듯 하다. 비교적 관심이 없는 과학 지식 서적이기에 이 기회가 없었다면 두 책을 읽을 생각조차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좋은 팀원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후원을 하게 되었으니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

오:**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는 수많은 선택에 대한 동기와 그로 인한 결과들.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많은 감정들 중 아쉬움과 회의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 의문을 품어왔다. 특히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나타나는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해서 특히 그래왔다.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한 생각을 토대로 생각을 뺏쳐 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의미 있었다. 또한 의무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막연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내 가치관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갇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인식해야 함을 배웠다. 이야기를

	<p>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라는 말이 계속 떠오른다. 본능은 이기적이라는 말에도 인간은 필요에 의해 이타성을 학습하였다는 점에서 말이다. 내가 표현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p>
--	--

2022년 06월 01일

참가자대표 : 김 **